

“진단교육의 성실한 길라잡이”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에너지진단전문가 과정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 먼저 ESCO와 같은 진단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진단에 대한 기술지식을 함양하여 공신력 있는 진단기술자를 배출함으로써 진단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육은 진단업체 뿐만 아니라 VA업체, 에너지다소비업체 등

산업체의 에너지관리자들에게도 진단기술을 전파하고 에너지절약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업체 스스로 에너지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올해 처음 개설한 에너지진단사교육은 지난 4월, 6월 두 차례 실시한 결과 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교육대상은 진단기관과 산업체, 건물 등의 에너지관리 및 진단 담당자들입니다. 교육기간은 총 155시간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정확히 한 달 간의 긴 교육입니다. 교육비는 170만원인데 본 과정이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되어 교육비의 24~27%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생의 실무 부담은 약 130만 원 정도되는 셈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에너지진단 분야 기초지식과 일반실무 이해를 위한 일반과정으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 세부 교과목은 열진단일반, 전기진단일반, 진단 데이터수집 및 분석, 경제성 분석방법, 에너지 관련 제도의 다섯 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진은 다른 어느 기술교육보다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교수진 전부가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명실공히 에너지진단분야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의 구성분포는 어떻게 되며 이들에게 기대되는 업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두차례 실시한 에너지진단사교육 수강생은 28명으로 수강생 전원이 현업에서 에너지절약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에너지분야 종사자들입니다. 삼성정밀화학, 삼성에버랜드, SK, 제일제당, 엘지화학, 팬아시아페이퍼 청원 등 대기업의 팀장·과장급에서부터 부산·대구도

손규석(孫奎錫) 홍보교육처장은 국방부 조달분부를 거쳐 공단 경리부장, 비서실장, 총괄지사장,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소각기술협의회 감사, FOTC 중앙회 부회장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손 처장은 지난 90년부터 현재까지 엘지화학, 대동, 공무원교육연수원, 주부클럽연합회 등 여성단체, 새마을연수원, 농민교육원 등지에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강의하고 있는 에너지진단사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진단교육을 반드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있다.



향후 산업체 에너지진단사 전문가로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진단자격자로 거듭나기 위해 교과목 편성에서부터 교육환경 개선 등 최고 품질의 에너지진단사 교육을 실시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가스 등 가스회사 연구원, 일신전기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 종사자들이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코, 한국하니엘, 엑서지엔지니어링, 에너지솔루션, 코리아에너지개발 등 특히 교육생의 70%가 ESCO업체로써 진단에 직접 종사하는 담당자들입니다.

세간에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격증제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이 교육을 받으면 에너지진단사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격증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1단계 에너지진단사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2단계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자격검정을 통하여 에너지진단사 자격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격기본법상의 요건충족 후 국가공인의 민간자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너무 길고 또한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을 실시하면서 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에너지진단 분야 자격종목 개발 연구를 근거로 교육기간 및 교과목이 구성되었습니다. 155시간의 교육기간은 단순히 생각해보면 매우 긴 시간입니다. 특히 산업체의 인력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장기간의 교육에 참여할 기업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진단 업무의 중요도와 향후 에너지진단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이 정도의 교육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에너지진단전문가 교육을 어느 수준까지 끌고 갈 계획이신지요?

- 2003년부터는 에너지진단사교육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할 계획입니다. 산업체를 비롯한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와 교육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교육과정, 교육기간 및 교과목 등을 조정할 예정으로 현재 유사기관 자료수집 및 검토 연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업체 에너지진단사 전문가로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진단자격자로 거듭나기 위해 교과목 편성에서부터 교육환경 개선 등 최고 품질의 에너지진단사 교육을 실시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계·전기분야 기술사 수준의 교육으로 정립, 발전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교육 대상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 에너지효율화를 기업의 키워드로 삼는 산업체에서 에너지진단사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단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에너지진단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에너지진단사 교육은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진단업무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에너지관리자들은 이 교육을 통하여 에너지진단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또한 향후 시행될 에너지진단사 자격제도에 대비하는 기회가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